

# “의사가 직접 시골마을 찾아가 어르신 살펴요”

의사와 물리치료가 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시골마을을 직접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치료해주고 있는 진도군의 ‘찾아가는 물리치료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보건소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찾아가는 물리치료 서비스’를 운영. 4년간 총 1만1197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과 고령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매년 68개 마을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간섭과 치료와 공기압 치료, 전기 찜질 등 통증을 완화하는 물리치료와 의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 진도군 ‘찾아가는 물리치료 서비스’ 만족도 높아 4년간 68개 마을 경로당 방문...1만1197명 이용

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올바른 자세 교육과 자가 운동법 지도도 병행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과 재활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일상생활의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리치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 움직이는게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 치료해 주니 큰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필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399@gwangnam.co.kr



진도군이 운영 중인 ‘찾아가는 물리치료 서비스’에 지역 주민들이 간섭과 치료와 전기 찜질 등 통증을 완화하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진도군청

## 강진 ‘쌀귀리 곡물칩·드론’, 스마트경영대회 석권

### 군, 1차 산업→디지털 지식산업 전환 주효

강진군은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6년 전남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주요 부문을 휩쓸며 디지털 농업 교육의 강력한 성과를 입증했다.

군은 이번 대회에서 라이브커머스 분야 최우수상(수경당 이채을 대표)과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분야 우수상(동호랑 이도호 대표)을 동시에 거머쥐며 디지털 농업 선도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이채을 대표는 지난 2023년 강진군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한 ‘녹색문화대학 라이브커머스 과정’을 마친 수료생이다.

스마트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이도호 대표는 “드론 정밀농업”을 통

한 농작업 효율화 사례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번 수상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해 온 ‘디지털 농업 교육’이 현장의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군은 변화하는 유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농업대학 운영과 라이브커머스 실전 교육 등 체계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해 왔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군에서 추진한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또 다른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드론과 라이브커머스 등 최신 농업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 교육을 확대해 강진 농산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6년 전남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라이브커머스 분야 최우수상(수경당 이채을 대표·왼쪽)과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분야 우수상(동호랑 이도호 대표·오른쪽)을 동시에 수상했다. 사진제공=강진군청

한편 강진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디지털 농업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과 스마트 경영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 완도, 경력 경쟁 임용시험...14명 채용

### 11~15일 온라인 원서접수

완도군은 ‘2026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을 실시해 지방공무원 14명을 신규 채용한다.

임용 직급은 9급이며,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은 보건 1명, 의료기술(치위생) 1명, 공업(기계) 1명, 공업(전기) 1명, 환경(일반 환경) 1명, 시설(토목) 8명, 시설(건축) 1명이다.

응시 자격은 성별과 거주 제한 없이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또 응시 직렬별로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군에서는 조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2024년부터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인성·적성 검사를 도입, 대상자의 직무 성향과 조직 적응력, 공직자로서의 의식과 친절도 등을 사전 파악해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응시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온라인 접수 사이트(wando.plusrecruit.co.kr)를 통해 응시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영암, 재택의료센터 확대 운영 장기요양 수급자 접근성 강화

영암군이 재택의료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영암군보건소는 이번 달부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촘촘한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암군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전담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54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군의 재택의료 운영 사례는 우수 사례로 주목받아 경남 고성군 등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졌으며, 전남도도 현장을 찾아 운영성과를 확인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보건소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를 독천한국의원과 해남한의원인 참여하는 협업체 재택의료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영암한국병원도 전담형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대상자 건강 상태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의료자원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현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곡성, 외국인 근로자 안전·건강 살핀다

### 근무실태 점검...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애로사항 청취

곡성군은 최근 오곡면 승범리 소재 블루베리 농가를 방문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심화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관리한다. 농가가 개별적으로 외국 인력을 구하던 방식과 달리, 지자체가 송출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배정함으로써 불법 체류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군에는 현재 총 76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과



곡성군은 최근 오곡면 승범리 소재 블루베리 농가를 방문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농협 등 3개 농협을 통해 농가에 배정되고 있다. 딸기·멜론·블루베리 등 노후작물 작목 중심이던 외국인 인력 수요가 높아 사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은 근로자의 안전 상태와 근로시간·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농작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지급과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농가주와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근로자 배정 인원의 적정성, 언어 소통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으며, 군은 이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의 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 영광, 재활용품 수거 ‘주 2회’ 확대

영광군은 재활용품 수거일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재활용품 배출 대기 기간이 길다는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관 중 악취가 발생

하고, 혼합배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재활용품 수거일을 기존 수요일(1회)에서 수·금요일(2회)로 변경했다.

군은 수거일 변경에 따른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

부, 군청 홈페이지 안내,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 횟수 확대는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들께서도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해남공룡대축제에서 어린이날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 사진제공=해남군청

## ‘공룡 보리 해남으로’ 14만명 몰렸다

### 공룡축제 2년 연속 흥행...공연·체험·야간 드론쇼 풍성

해남공룡대축제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의 가족 단위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해남공룡대축제에 14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했다.

올해 축제는 공룡을 좋아하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풍성했다.

방문객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 박물관인 해남공룡박물관을 둘러보며 공룡을 조망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들께서도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무대가 마련된 잔디광장에서는 티니핑, 베베리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캐릭터 공연을 비롯해 풍선쇼, 버블쇼, 마술쇼 등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대형 놀이 시설과 체험 공간에도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머거리 부문에서도 가족 축제의 성격을 고려한 운영이 이뤄졌다. 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어린이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방문객 편의를 높였다. 또 음식 판매 시 대화용기를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친환경 축제로 운영하며 해남형 ESG 가치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해남=박기성 기자 city@gdream.com